

마음 열기

찬송가 391장을 함께 부릅시다.

내가 교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하고 싶었던) 봉사는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스가랴 2장 1-5절,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리라”

여호와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한 천사가 손에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모습을 봅니다(1-2절).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기 위함입니다. 과거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은 말씀대로 바로 세워졌는지를 측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붙잡음이 사라진 유다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워진 것은 무너지도록 놔두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측량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자 천사를 보내어 측량하셨습니다. 땅에 건물을 지을 때 측량하다 보면 버릴 것과 연약한 기반이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은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다 감안하시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며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 측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넘치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직후였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황폐화되어 있었고, 성곽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재료와 인력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대적들의 공격이, 내적으로는 분쟁이 일어나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쓸모없어 보이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넘쳐나 성

곽을 둘러칠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선포하십니다(4절). 그리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5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회복하여 번성하게 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영적인 성곽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측량과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을 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이전에도 하셨지만, 지금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는 조건적인 말씀이었습니다(슥1:2-4).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연약해지고 망해버린 백성들을 향해 먼저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오라 하시며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의 성곽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맺음말.

우리의 모습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처럼 황폐하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건하시기 위해 우리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불 성곽이 되어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눈앞의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나의 모습 중에 가장 황폐하고 무너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삶 가운데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있나요?
3. 하나님이 나를 축량하시는 방법(연약함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내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굳게 믿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3.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의 불 성곽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9월 바이블로 가이드 (1) : 여호수아, 열왕기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며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이번 달 바이블로의 주제는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열왕기’는 “무너진 자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인간의 ‘세워짐’과 ‘무너짐’의 기준은, 다름아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닌 철저한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증명합니다.

- **열왕기**: 솔로몬의 찬란한 성전 건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끝내 바벨론에 멸망하는 뼈아픈 역사를 다룹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신앙의 시작도 말씀 중심을 잃어버리면 비극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번 주 묵상 포인트는 “내 삶의 중심 잡기”입니다. 순종으로 승리했던 여호수아의 걸음과, 작은 타협과 불순종으로 무너져 내린 열왕기 왕들의 실패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짐의 시작은 거창한 죄가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타협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주, 내 삶의 기초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FAMILY 나눔

2026년 8월 30일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리라

스가랴 2장 1-5절

